

## 광주, AI 중심도시 전남, 우주·에너지

내년 예산 미래성장동력 초점

광주시·전남도가 각각 인공지능(AI)과 우주·에너지 등 미래산업 국비예산을 대폭 확보했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597억원 AI 예산을 반영해 '실증 중심도시'로서 입지를 굳하게 됐고, 전남도는 '민간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 시험 시설' 구축과 지산지소(地産地消) 전기·AI 분산형 전력망 신사업 육성 예산을 마련했다.

3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는 내년 국비로 역대 최대 규모인 3조947억원을 확보, 명실상부한 'AI(인공지능) 중심도시'로 완전히 자리 잡게됐다. 특히 광주 AI 관련 예산은 총 1597억원으로 확정됐다. 여기에는 '국가 NPU(신경망 처리장치)·전용 컴퓨팅센터 구축 사업 타당성 용역비 6억원이 포함돼 총사업비 1000억원 규모의 국산 AI 반도체 전용 인프라가 광주에 들어서는 첫 단추를 끼게 됐다.

엔비디아(NVIDIA) 등 외산 GPU(그래픽처리장치)에 의존하던 국내 AI 산업의 판도를 바꿀 '게임 제이제'가 광주에 둉지를 트는 셈이다.

'AX(인공지능 전환) 실증밸리 조성' 사업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56억원이 증액된 297억원을 확보해 본궤도에 올랐다.

총 6000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기존 제조업과 헬스케어 등 지역 산업 전반에 AI를 입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기존 데이터센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국가 AI 데이터센터 고도화' 사업비 192억원도 확보해, 기업들이 저비용으로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AI 영토는 모빌리티와 반도체로도 확장됐다.

'AI 모빌리티 시범도시 조성'에 617억원이 투입돼 자율주행 기술을 도시 전체에서 실증하는 테스트 베드가 구축된다.

또한 반도체 첨단팹기지 구축(60억 원), 'AI 반도체 실증 지원'(220억원) 등 하드웨어 생태계 예산도 춤출히 쟁겼다.

이밖에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AI 영재

학교 설립을 위한 건축·운영비 31억4000만원과 인공지능사관학교 운영비 105억원도 반영됐다.

전남도는 우주, 에너지 등 전략산업 예산이 대규모 반영됨에 따라 우주산업과 재생에너지 부문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시험시설 구축에 앞서 실시설계 용역비 들어가는 예산 20억원을 확보하면서, 국가주도의 우주산업을 넘어 민간우주 산업시장도 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전용 엔진연소시험시설은 총 사업비 485억 원을 투입해, 고흥 나로우주센터 일원에 발사체 엔진개발을 위한 시험 인프라와 기반시설 구축하게 된다. 이 시설이 완성되면, 민간기업에서 개발 중인 다양한 연료 엔진(캐로신, 하이브리드, 메탄 등)을 언제나 시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남도는 엔진개발 기업이 오는 2029년이면 10개로 증가하고 민간 발사도 연간 41회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주로 가는 길'도 넓어진다. 내년도 국비에는 '고흥~봉래' 국도 15호선의 4차로 확장 설계비 80억 원이 반영됐다. 차선이 확장되면 우주발사체 클러스터까지 이동시간은 20분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전남도는 도로 확장으로 우주산업 기업들의 편의성과 산업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의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획기적으로 바꿀 사업도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전남은 높은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송전망 부족으로 계통 연계가 제한되는 상황을 겪고 있다.

내년부터 'AI 분산형 전력망 신산업 육성' 사업이 추진되면서 이 같은 고민을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산형 전력망 사업은 총 사업비만 1조가 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우선 내년도에 1196억원이 투입된다. 2030년까지 총 350MW(메가와트) 용량의 ESS 85개를 구축하게 되며, 5시간 주기로 총·방전이 가능한 3~4MW급 설비가 대상이다.

전남도는 ESS 구축으로 접속 대기 상태인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의 대기 물량 일부(350㎿)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ESS는 전력 지산지소 시대 개막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2면〉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무안공항 폐쇄 1년 - 하늘길 조속히 열어야 ▶6면

KIA 박찬호도 떠나고 최형우도 떠나고… ▶18면

팔도 핫플레이스 - 무안황토갯벌랜드 ▶22면

## 특검, 김건희 징역 15년·벌금 20억원 구형

"법 위에 군림, 헌정질서 훼손"

내년 1월 28일 1심 선고

'김건희 여사 특검팀'(특검 민중기)이 주가조작과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추징금은 총 9억4800여만원이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위에 서 있었다"며 "주가조작 공범들이 단죄받을 때 홀로 예외를 누리며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했고, 종교 단체와 결탁해 헌법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구

형 이유를 밝혔다. 김 여사는 최후 진술에서 "억울한 점이 많지만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명태균 씨로부터의 불법 여론조사 결과 수수, 통일교 정탁 대가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1심 선고는 해를 넘겨 내년 1월 28일 내려질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내란청산 '시민대행진'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열린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응원봉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 “대한국민 노벨평화상 자격 충분”

이대통령, 빛의혁명 1주년 성명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지정

"1년 전 오늘, 불법적인 계엄 시도를 무산시키고 정의롭지 못한 권력을 심판한 것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승리입니다. 우리 국민은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12·3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을 맞아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2면〉

이 대통령은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회상하며

시민들의 용기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견고한 회복력을 전 세계에 증명한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쿠데타 세력의 무도함에 맞서 국민들은 주저 없이 국회로 집결했다"며 "폭력 대신 평화적인 춤과 노래로 최악의 위기를 민주주의의 축제로 승화시킨 국민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한국 국민이 평화를 수호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드높인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게 된다면, 분열과 갈등으로 신음하는 전 세계 국가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

했다.

정부는 이날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로서 시민들의 위대한 결단을 기억하겠다"며 "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정해 국민들이 1년에 하루라도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내란 기담 세력에 대한 단호한 처벌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혁명은 아직 미완의 상태임을 언급하며 "시리사옥을 채우기 위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전쟁까지 불사하려 했던 반국가적 행위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의로운 통합'을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비전],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 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전라남도

전남관광플랫폼  
JN TOUR 신규 회원가입 이벤트